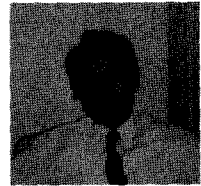




# "Ground Zero"와 "오리무중(五里霧中)" 이 선정된 2001년을 돌아보며



한국지기공사  
대표 김순철

매년 해만 바뀌면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는 어  
떠어떠했다고 판에 박힌 말이 나온다. 그런데 금  
년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정치적으로는 "오리무중  
(五里霧中)"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신조어로는  
"Ground Zero"라는 말이 국내외 제 일번으로  
선정되어 이채롭다.

"五里霧中"은 무슨 부정이 있으니 철저히 색출  
하여 그 원인을 밝히겠다는 당초의 장담과는 달  
리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다는데 나온 말인 듯 하  
나, 원래의 "五里霧中"은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  
었다.

《후한서(後漢書)》의 장해전(張楷傳)에 나오  
는 "五里霧"에서 시작된 말인데, 후한(後漢)의  
안제(安帝)가 유명한 학자 장해(張楷)를 불러들  
였으나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풀어 이 장해를 찾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  
방오리에 안개를 일으키며 숨어버렸다는 옛이야

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따라서 지금의 오리무중  
과는 격이 달리 나쁜 뜻은 아니다.

신조어 "Ground Zero"는 땅이 Zero이니 아  
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그곳에서  
제일 깊이 파인 점이 Ground Zero라니 그곳에  
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2000년도의 세계 각종 종이생산량은 32,300  
만 톤이 되었고 그 중에서 단일지종으로는 골판  
지원지의 점유비율이 제일 많아 자그마치 8,500  
만 톤이나 되어 37%를 점유한다.

이런 곳에서 불과 몇 백만 톤의 생산실적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골판지원지 생산현황이 세계의  
동향에 영향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  
내의 동향보다는 여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내부만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  
으니 마치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시장이 되고 있  
다. 제지공장의 조단률이 20%에 달하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Ground Zero를 면할 수 있을 것  
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단계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수송료가 상승하여  
OCC의 값이 \$5~10/ton이나 상승하고, 원지값  
은 일본의 경우도 작년대비 ¥5/kg이나 떨어져  
서 금년 3월 결산의 매출액을 대폭 수정하고 있

다.

王子제지는 당초 2001년도 매출이익을 650억  
에서 240억으로, 日本Unipack은 700억에서  
300억, 三菱(미쓰비시)제지는 60억에서 25억,  
大王제지가 270억에서 125억, 中越Pulp가 125  
억에서 56억 엔으로 대폭 수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野村(노무라)金融研이 분석한  
2002년 3월 결정기의 매출이익율도 王子제지가  
4.6%에서 2.3%, 日本Unipack이 4.8%에서

[표1-1] 중국 및 각국의 골판지원지 설비 신증설계획 (2000~2002년)

기 업 명	연산(t/年)	품 종	가 동
東莞九龍(Dong Guan Jiu Lung)	400,000	골판지원지	2000년 5월
福建青山紙業(Fujian Qingshan Paper)	150,000	라이너	2000년 5월
Doorim Paper (한국)	230,000	골판지원지	2000년 7월
Lee & Man	146,000	골판지원지	2000년 8월
萊州魯通紙業(Laizhou Lutong Paper)	50,000	라이너	2000년 9월
榮成紙業(Long Chen Paper)	84,000	라이너	2000년10월
青島海王紙業(Qingdao Haiwang Paper)	100,000	라이너	2000년11월
Visy Industries (오스트레일리아)	240,000	중심원지	2001년 4월
日本板紙 (일본)	120,000	라이너	2001년 4월
Guangxi Lipu Paper	50,000	골판지원지	2001년 6월
Pascorp (말레이시아)	75,000	쥬트라이너	2001년 2/4분기
東莞九龍	400,000	중심원지	2001년12월
河北冀騰紙業(Hebei Jiteng Paper)	100,000	쥬트라이너	2001년12월
中山聯興造紙(Zhongshan Ren Hing Paper)	150,000	라이너	2001년12월
天津造紙(Tianjin Paper)	50,000	라이너	2001년 말
Lee & Man	300,000	골판지원지	2002년11월
Genting Sanyen Industrial Paper Sdn. Bhd. (말레이시아)	460,000	골판지원지	2002년
榮成紙業	150,000	라이너	2002년



2.7%, 大王제지가 7.7%에서 5.2%, 三菱제지가 2.5%에서 0.4%, 北越이 10.3%에서 5.8%, 中越 Pulp가 5.8%에서 3.1%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 발표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이 합병과 부실공장의 폐쇄작업이다.

세계 최대의 IP가 Champion과 Union Camp 등을 매수합병하고 중핵부분의 공장만을 가동하고 영업실적이 불량한 계열회사는 과감히 폐쇄처분 하였으며, GP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유럽 또한 USA과 같은 경향으로 Stora-Enso가 IP의 주식 6%를 획득하고 IP와 합병을 기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A의 종이판지 생산량은 2.9% 감소(260만 톤)하고 특히 골판지원지 쪽은 과잉설비로 대폭 감산하였다.

오직 중국만이 2000년도 종이판지 생산이 전년대비 6.5% 증가한 3,100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수입지를 600만 톤이나 감축했다. 이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골판지원지 시설을 집행하고 있는데, 2002년도까지의 신증설계획을 보면 [표1-1] 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의 동남아 골판지원지 수출의 주요시장인 중국도 차츰 자급자족을 기도하고 있

어 우리의 수출전망에 암운이 깃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업계 최대의 과제인데, 그것은 사람과 제품을 특별화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통치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통의 인력과 제품은 천덕꾸러기 처럼 취급되고 있다.

사람들은 직업을 찾을 길이 없고 보통의 제품들은 덩핑하지 않으면 재고만 쌓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수교육으로, 제품은 보통이 아닌 특화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